

## “SMR은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핵심 요체”

정재훈

한국수력원자력(주) 사장



벌써 두 번째 국회포럼을 맞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.

특히 두 공동위원장님, 양정숙 의원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용홍택 차관님, 산업통상자원부의 김대자 국장님, 원자력안전위원회 장보현 사무처장님, 그리고 KINS, 한국원자력연구원 발제자로 나서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

오늘 앞서 빌 게이츠부터 인구학까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, 저는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.

탄소중립위원회가 초안을 내놓았습니다. 저는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탄소중립사회로 가야하는 것에 동의하고, 모든 사람들이 그 취지에 동감한다고 믿습니다.

그러나 1안, 2안 및 3안 등 그 내용을 보면 목표는 있는데, 목표를 따라 올라가는 사다리가 중간에 붓겠다고 생각합니다. 사다리가 놓여 있지 않는 빈공간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완을 하거나,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비용이라도 비교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또한, 에너지 소비자들에게도 에너지 주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

을 드리고 싶습니다.

두 번째, 탄소중립위원회 초인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, 그것이 없습니다. 대신에,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,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고, 상당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

세 번째, 오늘 용흥택 차관님도 말씀하셨듯이, 작년 연말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과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인 SMR을 위해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만,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에 SMR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.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중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다 전기에너지가 오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기본적인 수로, 그리드가 있어야 합니다. 그리드에 대한 고려 없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숫자를 나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.

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를 다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요체이자 관건이 SMR입니다. 그래서 SMR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, 지금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, 우리가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, 두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. 오늘 제2회 국회 포럼을 통해서 SMR이 좀 더 뼈대에 살이 붙어지고 또 현실적인 대안, 사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**KMIF**